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는 성혁명의 상징인가?

르네 지라르의 문화이론에 기초한 프로이트맑시즘 비판

정일권 전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초빙교수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대학 신학박사(Dr.theol)

국제 지라르 학회(Colloquium on Violence and Religion) 정회원

1. 21세기 글로벌 반-젠더이데올로기 운동과 프로이트맑시즘 비판

1.1.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프로이트맑시즘의 아킬레스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 논문은 차별금지법으로 법제화를 시도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퀴어이론 그리고 동성애 운동은 프로이트맑시즘(Freudomarxismus)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이해한다. 프로이트맑시즘의 초석이자 아킬레스건인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은 그리스 비극작품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범성욕주의적 오독으로 인한 것이기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이론이기에, 21세기 글로벌 성혁명운동과 사회주의 성정치 운동의 기초가 되는 프로이트맑시즘 자체가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2014년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연구소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이성원 명예교수의 논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오이디푸스가 일종의 희생양,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희생염소(scapegoat)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라르의 해석을 언급하며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지라르를 이론을 소개하면서 오이디푸스의 추방은 당시의 인간 희생양(human scapegoat) 파르마코스(pharmakos) 추방과 연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탄생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과 그의 정신분석에 대한 지라르의 비판과 그의 새로운 해석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파생된 이후의 포스트모던적 정신분석(라캉, 크리스테바, 들뢰즈-가타리)이 천착하고 있는 오이디푸스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의미한다.¹⁾

그리스 비극작품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프로이트와 프로이트맑시즘의 오독으로 인해서

프로이트맑시즘의 첫 학자라 할 수 있는 빌헬름 라이히의 성혁명 이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소아성애의 근거가 된다. 이후 소개할 독일 녹색당과 좌파의 “소아성애적 안티파(안티파시즘)” 운동에서는 “동성애의 탈범죄화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이 동일한 그룹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2020년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 현대사 교수인 페터 호에레스(Peter Hoeres)는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소아성애는 1980년대의 독일 녹색당의 미래기획이었고 이는 동성애의 탈범죄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은 동일한 그룹에 의해 추진되었다.”²⁾ 그렇기에 동성애 운동은 21세기 글로벌 성혁명과 사회주의 성정치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독일어권에서도 아직도 “정립된 학문”(etablierte Wissenschaft)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³⁾ 21세기 심리학의 주류도 뇌과학에 기초한 인지심리학이다 또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디스 버틀러도 인정하는 거세지는 글로벌 퀴어-젠더 연구 폐지운동도 소개하고자 한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UN과 EU와 같은 기구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관철되는 국가페미니즘(Staatsfeminismus)이며, 칼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사상의 융합으로 탄생한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인데, 국가재정을 통해서 국가주의적인 방식으로 강제되는 이 탑다운 방식 국가페미니즘(퀴어-젠더 페미니즘)의 보편적 학문성에 의문을 이 논문은 제기하고자 한다.

프로이트맑시즘은 사회주의 성혁명과 성정치 개념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의 제자 빌헬름 라이히, 성유평가론을 주장한 마르크제, 68 학생 문화혁명 세대, 문화맑시즘(Kulturmarxismus)을 지향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 포스트모던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모두에 존재하는 사유다. 반자연과학적이고 반실재주의적인 해체주의 철학과 퀴어 무정부주의(Queer Anarchism)을 주장하는 주디스 버틀러의 입장은 인류 문명과 신화와 제의에 대한 피상적 오독으로부터 파생된 사회주의 정치이데올로기로서, 21세기 인류문명을 위한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의 저서 “르네 지라르와 현대 사상가들의 대화. 미메시스 이론, 후기구조주의 그리고 해체주의 철학” (서울: 동연, 2017) 8장 들뢰즈: 『안티 오이디푸스』와 희생양 오이디푸스를 참고하라.

2) 페터 호에레스 교수는 2020년 3월 11일 독일 보수주의 도서관(Bibliothek des Konservatismus)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미래 보수주의의 개막극(Nach der Postmoderne - Vorspiel eines Konservatismus der Zukunft)”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역사가로서 20세기 후반 유행했던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독일어권을 비롯한 유럽에 새로운 보수주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강의에서 그는 또한 독일 녹색당과 좌파정당이 추진했던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3) 독일어권에서 유명한 철학프로그램으로 알려진 2008년 바이에른 방송(Bayerischer Rundfunk)이 제작한 철학프로그램 ‘서양 사상가’(Denker des Abendlandes) 3.14 Darwin, Freud, Max Weber (37/43)에서 이러한 사실이 소개된 바 있다.

지속가능하고 보편타당한 교육이념이 될 수 없다. 주디스 버틀러는 해체주의 철학을 자신의 젠더페미니즘에 적용시켰지만, 정작 해체주의 철학을 주장했던 데리다는 생애 후기에 ‘눈물과 기도’를 보이면서 자신을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비견하면서 유대교 전통으로 회귀했다.

1.2. 주디스 버틀러가 말하는 21세기 글로벌 반-젠더이데올로기 운동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 퀴어들(LGBTQ)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차별금지법, 동성애 운동, 퀴어 이론, 퀴어 신학, 퀴어 문화축제, 젠더교육 등이 글로벌 성혁명 운동과 사회주의 성정치 운동의 맥락에서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이러한 운동은 서구에서는 거대한 저항운동을 직면하면서 이제 저물고 있다. 동성애 운동, 퀴어 이론, 젠더주의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론가이자로 평가되는 주디스 버틀러는 2020년 4월 “누가 젠더를 두려워하는가?” (Who is Afraid of Gender?) 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서 『젠더 트러블』의 저자로서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이를 교란시키고 해체시키는 트러블메이커로 그 동안 활동한 자신이 젠더이론에 대한 강력한 글로벌 저항운동에 직면해서 “트러블”(곤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21세기 글로벌 반-젠더이데올로기(anti gender ideology movement)가 프랑스, 독일, 스위스, 헝가리 등 유럽 전역과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전역 등에서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프랑스 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국가페미니즘(Staatsfeminismus) 형식으로 타당한 방식으로(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강제되는 젠더교육과 젠더연구가 “자주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있다고 주디스 버틀러는 불평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21세기 유럽 전역에 걸쳐서 젠더교육에 대한 반대하는 운동이 커져서 점차 젠더교육이 폐지되고 있다고 증언한다. 2013년 이후로 프랑스에서도 젠더교육 폐지 운동이 거세지고, 최근 헝가리에서도 젠더교육이 폐지되었고 젠더연구 중심지로 유명했던 중부유럽대학(Central European University)이 이 강력한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운동과 저항운동에 직면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디스 버틀러는 말한다. 2019년 브라질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젠더교육을 학교 공교육에서 폐지하기로 선언했고, 이러한 흐름은 콜롬비아 등 남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주디스 버틀러는 소개했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주디스 버틀러는 이 강연을 통해서 그 동안 레즈비언페미니즘, 퀴어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의 주요이론가로서 지난 20년간 법률적 승리가 이루어졌지만, 1999년 바티칸의 가정에 관한 공식기구와 공식문서 등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두 교황으로부터 젠더 이데올로기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라는 창조질서라는 기독교 가르침에 대한

공격으로 이해되어 "악마적인 이데올로기"로 평가되었다고 말했다. 주디스 버틀러가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두 교황을 중심으로 글로벌한 저항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것은 글로벌한 정치지형에도 큰 영향을 주어서 곳곳에서 젠더교육이 폐지되기 시작했다. 젠더교육에 선봉에 섰던 북유럽 노르웨이에서도 최근 젠더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주디스 버틀러의 증언처럼 로마 가톨릭 뿐 아니라, 복음주의 교회와 오순절 교회들도 이 젠더주의에 대한 강력한 저항운동에 연대하고 있다.⁴⁾

글로벌하게 거세지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운동과 폐지운동은 21세기 유럽 전체에 걸친 사회주의(민주적 사회주의) 노선의 퇴조와 포스트모더니즘의 황혼과 연동되어 있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법은 범기독교적(혹은 범그리스도교적인) 차원에서 21세기 글로벌하게 거세지는 반젠더이데올로기 운동과 연대하면서 저항해야 한다. 서구에서도 젠더 이데올로기 20년 역사 동안 처음 10년 정도는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후 10년부터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젠더교육을 폐지하는 방향이 대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젠더 주류화(Gender-mainstreaming)가 대세가 아니라, 젠더교육 폐지 운동이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주류화되어가고 있다. 주디스 버틀러는 "퀴어 무정부주의"(Queer anarchism)를 주장하는데, 무정부주의가 결코 인류 문명의 주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녀가 주장하는 무정부주의적-사회주의적 동성애 운동, 퀴어이론 그리고 젠더교육은 결코 주류화될 수 없으며 극소수 운동으로 '톨레랑스'의 영역에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젠더 주류화(Gender-Mainstreaming)은 결코 주류가 될 수 없으며 21세기 인류문명의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주디스 버틀러는 2020년 4월 이 강연에서 독일에서도 젠더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운동이 거세지면서 학계에서도 이 젠더이론 자체가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불평했는데, 독일 학계에서의 젠더교육 비판운동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자. 동성애, 퀴어, 젠더, 차별금지법은 모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성혁명 운동과 성정치 운동에 속하는데, 사회주의는 초기 프랑스 사회주의 운동에서 시작되었지만, 독일에 와서 완성된다. 동성애 운동, 퀴어, 젠더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 독일 68 학생 문화혁명 운동,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Kritische Theorie)의 기초에 존재하는 프로이트마시즘(Freudomarxismus)으로부터 파생한 것이다. 주디스 버틀러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을 가르치는 교수직에 있으며, 최근 아도르노 상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주의 성정치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독일에서

4) Who is Afraid of Gender? Prof. Judith Butler

(https://www.youtube.com/watch?v=cqc3uCold08&fbclid=IwAR3N5_mCGe_r51M7MCmGYAy4G46u9ctuERBK9HjlzYNjNRz13zmkXpmoCJA)

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젠더연구와 퀴어연구 폐지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1990년대 주디스 버틀러의 퀴어이론과 젠더연구 등을 가장 선구자적으로 독일 대학에 정착시켰던 독일 함부르크 대학 페미니즘 교수였던 마리안네 피퍼(Marianne Pieper)는 2018년 “퀴어 연구는 어디로 가는가? 퀴어 이론과 실천의 현상학과 미래에 대하여”(quo vadis queer studies? – Zur Situation und Zukunft queerer Theorie und Praxis)라는 강의에서 최근의 독일 대학에서의 퀴어 연구와 젠더 연구의 “극복”과 폐지 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가르쳤던 독일 함부르크대학에서의 젠더 연구 분야도 최근 폐지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퀴어 연구와 젠더페미니즘 분야를 폐지하는데 독일 중도우파 정당인 기독교민주연합(CDU) 정치인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 여교수는 소개한다. 그리고 피퍼 교수는 “너과학적으로 이미 반박되고 폐기된 존 머니(John Money)의 젠더개념”을 급진페미니즘 학자들이 수용해서 젠더 연구 분야를 만들었다고 비판적으로 분석한다.⁵⁾

1.3. 아도르노와 버틀러의 성금기(동성애, 매춘, 소아성애, 근친상간) 폐지 주장

주디스 버틀러는 최근 아도르노 상을 받았는데, 아도르노는 프로이트맑시즘과 문화맑시즘을 추구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Kritische Theorie)에서 가장 주요한 철학자이자 가장 잘 알려진 학자다. 아도르노는 1967년 10월 1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교에서 오스트리아 사회주의 학생연합(Verband Sozialistischer Studenten Österreichs)의 초대로 이루어진 “성적인 금기와 오늘날의 법률”(Sexualtabus und Recht heute)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성적인 금기(Sexualtabus)를 철폐해야 하는 주장을 했다. 프랑스 초기 사회주의자들에서부터 보편적 매춘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했는데, 아도르노도 매춘 금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매춘에 대한 박해”(Verfolgung der Prostitution)에 대해서 비판하고, 동성애 금기도 비판하며, 동성애를 변호했다. 마지막으로 아도르노는 이 강연에서 소아성애도 지지하는 인상을 주면서 소아들의 성욕망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전반적으로 프로이트 사상과 빌헬름 라이히의 사상이 수용된 내용이다. 아도르노는 이 강연에서 성적인 금기들을 파괴하고 이것을 형법제정 절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아성애에 대한 아도르노의 입장은 그다지 명확하지 않지만, 성적인 금기들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소아들의” 성욕망에 대해서도 긍정해

5) Prof. Dr. Marianne Pieper: quo vadis queer studies? – Zur Situation und Zukunft queerer Theorie und Praxis
https://www.freie-radios.net/101400?fbclid=IwAR0iNCrzo7KuDZ2IGOP4FGQKZJ9_9SwabS60yW7r4ByK-EGlaOd140G4GQU

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도로느의 이 강연은 이후 “섹슈얼리티와 범죄”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⁶⁾

젠더 이데올로기의 가장 중요한 이론서라 할 수 있는 『젠더 트러블: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에서 버틀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 등에 기초해서 사실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등장하는 어머니를 향한 아이의 근친상간 성욕망을 긍정하며, 나아가 근친상간 금기에 대한 폐지를 주장한다.⁷⁾ “주디스 버틀러, 근친상간 그리고 아이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라는 2010년 논문도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등장하는 근친상간 성욕망을 긍정하며 그렇기에 근친상간 금기를 폐기해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을 다루고 있다.⁸⁾ 독일어권에서 글로벌 성혁명 운동에 대한 비판적 계몽운동의 선구자로 활동하는 가브리엘 쿠비도 버틀러가 사실상 근친상간 금기의 폐지를 주장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버틀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에 등장하는 근친상간 금기와 그녀가 새롭게 주목하는 동성에 금기 등을 성혁명적인 관점에서 해체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버틀러의 이러한 주장을 르네 지라르의 미메시스적 인류학, 지라르의 그리스 비극이 해와 지라르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대한 해명에 근거해서 비판하고자 한다.

버틀러는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과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기초에 있는 근친상간 금기 자체도 비판하지만, 르네 지라르는 자신의 주저 『폭력과 성스러움』 (*La Violence et le Sacré*)⁹⁾ 제3장 오이디푸스와 희생양, 제7장 프로이트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제8장 <토텐과 터부> 그리고 근친상간의 금기 그리고 제9장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와 결혼 관습에서 버틀러가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해석과 분석을 제시했다. 지라르는 자신의 책 『폭력과 성스러움』 7장 ‘프로이트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프로이트가 그리스 폴리스의 희생양 오이디푸스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친상간 금기와 동성에 금기를 해체하고 파괴하고 파계하려고하는 주디스 버틀러는 ‘오이디푸스 왕’과 ‘안티고네’와 같은 그리스 비극에 대한 피상적 이해와 오독을 하고 있다. 주디스 버틀러 뿐 아니라, 프로이트맑시즘과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자체가 그리스 비극작품 ‘오이디

6) Fischer Bücherei, Bd. 518/519, unter dem Titel "Sexualität und Verbrechen", Frankfurt und Hamburg 1963; außerdem abgedruckt in: Band 10.2 der Gesammelten Schriften, Suh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S. 533 – 554.

7)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2007).

8) JE, Kilby, 'Judith Butler, incest, and the question of the child's love', *Feminist Theory*, 11 (3), 2010, pp. 255–265.

9) René Girard, *La Violence et le Sacré* (Paris: Grasset, 1972).

푸스 왕'에 대한 범성욕주의적 오독에 기초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라는 초석/아킬레스 건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이다.

1.4. 성혁명, 성정치 그리고 성유토피아(빌헬름 라이히와 마르크제)

독일어 위키피디아에는 프로이트맑시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프로이트맑시즘은 유럽의 신좌파(68 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자본주의 국가는 고도의 노동성취를 위해서 성을 억압하게 되는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에 의하면 이는 군중노이로제를 일으킨다. 그렇기에 '새로운 인류'의 해방과 자율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성을 자유롭게 독립시켜야 한다고 라이히는 주장한다. 프로이트맑시즘의 기초를 수립한 학자는 빌헬름 라이히다. 국내에는 라이히의 성혁명과 성정치에 대한 다수의 책이 이미 번역되어 있다. 그의 프로이트맑시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하는 에릭 프롬(Erich Fromm)에 의해서 수용되었고, 무엇보다도 마틴 하이데거에 의해 영감 받은 마르크제(Herbert Marcuse)에 의해 계승되었다.

이 프로이트맑시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 프랑스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맑시즘적이고 정신분석학적인 포스트모던 급진페미니즘 모두에 자리잡고 있다. 우선 성혁명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빌헬름 라이히, 그리고 빌헬름 라이히의 성혁명 이론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럽 68 학생 문화혁명의 멘토이자 구루였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크제(Herbert Marcuse)를 논의하고 그 이후에 퀴어 이론과 젠더 이데올로기의 '여제사장'으로 평가받는 주디스 버틀러와 프로이트맑시즘 전통에서 있는 포스트모던적 급진페미니즘 이론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성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섹슈얼리티(성)에 대한 프로이트적인 정신분석학과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칼 막스의 정치경제학이 융합되어서 탄생한 개념이다. 『성혁명』이라는 책의 저자이자 유럽 68 문화혁명 세대들의 성혁명과 성정치 운동의 기원이 된 오스트리아 출신의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는 프로이트의 제자였지만, 이후 정신분석학회에서 추방되었는데, 그 이유는 라이히가 정신분석학회에 공산주의 사상을 도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빌헬름 라이히의 프로이트맑시즘은 이후 유럽 68 학생 문화혁명 당시 깊게 수용되었다. 그의 책은 68 운동 당시 광범위하게 읽혀졌다. 특히 라이히는 “아이들의 성(Kindliche Sexualität)은 해방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들의 성억압은 파시즘적인 시스템을 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유럽 68 운동권에 의해서 수용되어졌고, 이후 독일연방

공화국(BRD)의 학교 성교육 과정에 영향을 주었으며,¹⁰⁾ 여러 다른 학문분야에서 하나의 신앙고백(Credo)처럼 되었다. 이러한 라이히의 이론에 기초한 독일 초기성교육에는 “소아성애적인 요구”(pädophiler Forderungen)가 포함되어 있어 최근 독일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¹¹⁾ 빌헬름 라이히는 반권위주의적 교육을 위해서 “세대적인 가정질서의 해체”(Auflösung generationaler Familienordnung)를 주장했다. 이러한 사상은 미국의 여성운동과 젠더정치적 개념들에 깊은 영향을 준 프로이트맑시즘적인 페미니즘(freudomarxistischer Feminismus)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빌헬름 라이히와 마르쿠제와 같은 혁명적 좌파 프로이트 추종자들은" "통음난무(Orgie)를 성유토피아(Sexualutopie)로 설파하기도 했다."¹²⁾ 68 학생운동의 구루였던 마르쿠제의 『에로스와 문명』¹³⁾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 대한 성유토피아적 해석인데, 그의 책은 게이 운동과 성정치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마르쿠제는 이 책에서 성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유토피아적인 사회에 대한 개념을 하나의 조직적인 철학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성유토피아를 주장하는 빌헬름 라이히와 마르쿠제의 책들은 유럽 68 문화혁명 운동 당시에 유행한 히피운동, 자유로운 성 운동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성유토피아론은 공산주의적인 가정해체 이론과 관련되어 있었다. 당시 자유로운 성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젊은이들은 공산주의적 코뮌(Kommune)에서 실제로 자유연애주의, 폴리아모리(polyamorie, 다자성애) 등의 삶을 추구했다. 라이히의 『성혁명』이라는 책의 원제는 『문화전쟁 속의 성』(Die Sexualität im Kulturkampf)인데, 이는 라이히가 지향한 프로이트맑시즘적인 성혁명이 기독교 성도덕에 대한 문화전쟁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2. 프로이트맑시즘(동성애 운동, 퀴어 이론, 젠더페미니즘)은 사상누각이다.

2. 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오독(소아성애와 성혁명)

빌헬름 라이히의 저작 『파시즘의 군중심리』¹⁴⁾ 제2장은 “파시즘적 군중심리의 권위주의

10) Christin Sager: *Das aufgeklärte Kind. Zu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anischen Sexualaufklärung (1950–2010)*. Bielefeld 2015, S. 129 ff.

11) Vgl. Günther Deegener (2016): Bewertung pädophiler Forderungen im Deutschen Kinderschutzbund (archivierte Version auf Docplayer), S. 3 ff.

12) Martin Lindner, *Leben in der Krise. Zeitromane der neuen Sachlichkeit* und die intellektuelle Mentalität der klassischen Moderne (Stuttgart, 1994), 28.

13) Herbert Marcuse, *Eros and Civilization: A Philosophical Inquiry into Freud* (Boston: Beacon Press. 1974).

적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자였던 빌헬름 라이히는 막스-엥겔스의 가르침대로 사회주의 혁명의 장애물인 가족과 결혼제도를 해체하고자 했다. 라이히의 ‘파시즘의 군중심리’를 논의한 이 책은 이후 프로이트맑시즘적인 포스트모던 철학자 들뢰즈와 가타리의 책 『안티-오이디푸스』에까지 계승되며 영향을 주었다. 『안티-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에서는 자본주의가 파시즘으로 파악된다. 네오맑시스트들은 독일 나치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라고 보았다. 그들에게는 자본주의는 곧 파시즘이다. 『안티-오이디푸스』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이후에 등장할 것이다. 그의 성혁명의 논점은 어린이, 여성, 청소년의 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성을 긍정하고, 당연히 어린이의 성도 긍정한다. 그리고 어린이의 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알몸교육’을 강조한다. 바로 이러한 어린이의 성에 대한 긍정으로 인해서 이후 68 운동과 독일 녹색당과 독일 좌파 진영에서는 소아성애 운동이 벌어졌고, 최근에는 그것이 비판적으로 크게 공론화되었다.

라이히는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만약 어떤 아이가 동료 아이들과의 ‘육감적인 분출’(a sensual outlet)을 가지게 된다면 덜 쑥이게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게 집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덜 강렬해질 것이다”고 주장한다.¹⁵⁾ 이렇게 라이히의 프로이트맑시즘적인 성혁명과 성정치 운동, 특히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들의 성혁명과 청소년들의 성해방 운동의 이론적 기초와 근거에는 여전히 프로이트가 말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 존재한다. 쉽게 말하면 라이히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성혁명 운동을 전개하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강렬함은 완화된다는 것이다. 소아성애가 이루어지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강렬함은 완화된다고 라이히는 주장하는 것이다. 즉 소아성애의 이론적 근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다. 하지만 이것은 프로이트가 차용한 그리스 비극작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범성욕주의적이고 프로이트맑시즘적인 오독이다.

프로이트와는 달리 사춘기 이전의 청소년의 성욕망과 소아들의 성욕망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초석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에 등장하는 어린 아이(오이디푸스)의 어머니를 향한 근친상간의 성욕망에 대한 오독이다. 프로이트 자신뿐 아니라, 빌헬름 라이히, 주디스 버틀러, 프로이트맑시즘적인 페미니즘 학자들이 점차 아이들의 성욕망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는 희생염소 혹은 파르마코스(인간 희생양)

14) Wilhelm Reich, *Die Massenpsychologie des Faschismus* (Kopenhagen: Verlag für Sexualpolitik, 1933).

15) Myron Sharf, *Fury on Earth: A Biography of Wilhelm Reich* (New York: St. Martin's Press/Marek, 1983), 135.

역할을 하는 오이디푸스의 ‘하마르티아’(비극적 결함, 죄악)인 근친상간과 부친살해를 억압받는 성욕망으로 오독해서 나온 것이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등장하는 오이디푸스의 치명적인 결함과 죄악(하마르티아)인 근친상간적인 성욕망은 소아성애의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없다. 근친상간적 성욕망은 희생염소(scapegoat) 역할을 하는 오이디푸스에 대한 그리스 폴리스의 마녀사냥일 뿐이다. 오이디푸스의 하마르티아인 근친상간과 부친살해는 빨갱이, 친일파와 같은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 공격이나 마녀사냥으로서, 희생염소 역할을 하는 오이디푸스에 대한 사회적 비난형태일 뿐이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은 어머니와 근친상간하고 아버지를 죽인 자일 것이다. 그래서 오이디푸스도 죽어서라도 근친상간한 어머니와 자신이 죽인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그리고 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눈을 찢은 것이다. 성욕망, 성해방, 성정치, 동성애, 퀴어 이론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많은 이론가들은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프로이트 맑시즘적인 오독으로 인해 사실상 소아성애를 긍정하고 근친상간 금기를 폐지하는 주장을 하게 된다. 들뢰즈-가타리의 『안티-오이디푸스』의 서문을 쓰기도 한 프랑스 포스트모던 철학자 미셸 푸코도 독일 녹색당의 주장처럼 합의에 의한 소아성애의 탈범죄화를 주장했다. 푸코는 1977년 강간 범죄는 오직 폭력범죄로만 처벌되어야하며, 성범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푸코는 1978년에는 성인과 어린 아이들의 “비강제적인 섹스는 완전히 탈범죄화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페미니스트들은 강간과 소아성애에 대한 푸코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적이었다.¹⁶⁾ 니체가 말한 디오니소스적 광기(mania)와 통음난무(orgia)를 다시금 철학적으로 재발견한 푸코는 프랑스 공산당원이었다가 이후 중국의 마오쩌둥을 숭상하는 마오이즘에 빠졌고, 마약 LSD를 사용하기도 했고 이후 동생애자로서 살았으며 에이즈로 고통 받았다. 들뢰즈는 자신의 철학자 해석 방법을 ‘항문 성교(enculage)’라고 불렀는데, 이는 작가의 뒤를 파고들어가 자기 것 같을 뿐 아니라 기이하고 색다른 '새끼'를 낳는다는 의미다.

2.2. 독일 녹색당의 소아성애 합법화 지원 파문

빌헬름 라이히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해방에 대한 주장은 최근 독일 녹색당에서 발생한

16) Chloe Taylor, *Foucault, Feminism, and Sex Crimes: An Anti-Carceral Analysis* (Routledge 2018); Linda Alcoff, "Dangerous Pleasures: Foucault and the Politics of Pedophilia," in Susan Hekman (ed.), *Feminist Interpretations of Foucault*. Pennsylvania State Press (1996).

소아성애 스캔들까지 연결된다. 빌헬름 라히이의 성혁명에 대한 책들은 유럽 68 학생 운동권에서 의해서 광범위하게 읽혀졌다. 또한 당시 빌헬름 라이히와 마르쿠제의 성유토피아론을 따라서 유럽 68 문화혁명 세대들의 일부는 실제로 소아성애(pedophilia)도 포함하는 성공동체(코뮌)을 이루기도 했다. 68 학생 운동권이 “제도권으로의 긴 행진”을 하여 헤게모니를 장악한 정당들은 주로 독일에서는 사민당(SPD)과 녹색당이었는데, 녹색당의 주류가 90년대까지 소아성애를 탈범죄화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 2013년 이후 독일의 각종 언론과 매체에서 크게 공론화되었다. 우리나라에도 ‘연합뉴스’ 등을 통해서 언론보도 되었고, 독일 녹색당에 대한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소개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 당시 녹색당 지도부는 소아성애와 관련한 과거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2013년 총선 기간 동안 독일 녹색당은 ‘소아성애 합법화 지원 파문’을 겪었다. 녹색당이 1980년대 소아성애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주장에 동의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했다는 정보가 ‘슈피겔’을 통해 보도되었다. 독일 ‘슈피겔’지는 2013년 5월 12일 기사 “소아성애는 녹색당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강하게 잠입했었다”를 통해서 녹색당 유럽의회의원 다니엘 콘-벤디트(Daniel Cohn-Bendit)의 주장을 소개했는데, 그는 1980년대 녹색당에서의 소아성애 합법화 추진은 결코 소수의견이 아니라, 주류의견이었다고 주장했다.¹⁷⁾ 독일 ‘슈피겔’지는 녹색당 기록보관소의 자료를 인용하여 녹색당이 1980년대 게이와 남색자, 성전환자들의 연합단체인 BAG SchwuP(BAG)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단체가 소아성애의 합법화를 추진했다고 전하였는데, 이 사건은 녹색당이 2013년 총선에서 실패한 주요한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당시 녹색당은 즉각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면적인 조사를 공약하고 나섰다. 다른 곳에서 본 것처럼 독일의 경우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은 같은 그룹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2.3. “소아성애적 반파시즘”(68 학생운동, 독일 녹색당과 좌파)

“녹색당. 과거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독일 ‘슈피겔’지 2013년 5월 13일 기사는 “소아성애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신생 녹색당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강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녹색당의 책임은 아동들과의 성관계를 인간적인 성욕망이 표출되는 정상적

17) “Pädophile hatten Grüne stärker unterwandert als bisher bekannt,” Spiegel 2013년 5월 21일 기사 (<https://www.spiegel.de/spiegel/vorab/paedophile-hatten-gruene-staerker-unterwandert-als-bisher-bekannt-a-899286.html>)

인 유형으로 인식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녹색당)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고 이 기사는 분석한다. 또한 소아성에 운동과 독일 녹색당과의 깊은 연관성은 유럽 68운동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녹색당은 68 운동의 산물인데, 그 운동은 사회를 성적인 억압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압착되고 자유스럽지 못한 인간은 모든 악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다”. “1980년에 녹색당은 창당되었는데 소아성에 지지자들은 창당 때부터 참여했었고, 그들은 물론 사건의 중심에는 아니었지만 항상 주변에 존재했다.”

녹색당 창당 첫째 날부터 평화주의자들, 페미니스트들 그리고 반핵주의자들과 함께 “도시의 인디언들”(Stadtindiane)이 등장해서, “성인들과 소아들 사이의 모든 부드러운 성적인 관계들에 대한 합법화”를 요구했다. 2013년에 녹색당 대표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보호가 녹색당의 중요한 관심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아성에 지지자들은 여전히 녹색당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녹색당이 중장기적으로 성소수자들을 위한 투쟁해 줄 유일한 정당으로 보고 있다. 소아성에 합법화를 시도하는 자들은 자신들도 성소수자들이라고 보는 것이다.¹⁸⁾ 독일 저명한 주간지 ‘디 짜이트’(Die Zeit)는 2013년 10월 10일 “68 세대 – 소아성애적 반파시즘”(Achtundsechziger – Pädophiler Antifaschismus)라는 제목으로 68 학생운동 속의 소아성애 운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¹⁹⁾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 걸쳐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계몽운동과 저항운동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여성학자 가브리엘 쿠비(Gabriele Kuby)는 일부 유럽 68 운동권들의 소아성에 행위, 근친상간 금기 폐지시도, 디오니소스적인 성공동체와 성유평화 환상 등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증언하고 분석하고 있다. 유럽 각국 언어로 번역된 그녀의 베스트셀러 작품으로서 독일의 저명한 철학자 로버트 스페만(Robert Spaemann) 교수가 서문을 적은 『글로벌 성혁명 – 자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자유의 파괴』라는 책은 UN과 EU를 글로벌 성혁명의 주동자로 비판한다. 또한 그녀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성애화된 젠더-인간을 지향하는 거대한 재교육”(die große Umerziehung zum sexualisierten Gender-Menschen)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옷을 입은 새로운 전체주의”가 추진하는 “언어의 정치적 유린”, 독일어권 유치원과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기성애화(Frühesexualisierung)와 과잉성애화(Hypersexualisierung) 성교육의 실태를 고발한다.²⁰⁾ 그녀는 일부 독일 유치원에서 실행되고

18) Jan Fleischhauer, Ann-Katrin Müller und René Pfister, *Grüne. Schatten der Vergangenheit*, 2013년 5월 13일 기사.<https://www.spiegel.de/spiegel/print/d-94865572.html>

19) Adam Soboczynski, “Achtundsechziger – Pädophiler Antifaschismus”, *Die Zeit*, 2013년 10월 10일 기사 (<https://www.zeit.de/2013/42/paedophiler-antifaschismus-kindesmissbrauch>).

있는 젠더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 모양의 장남감 등을 통한 조기성애화 성교육 실태도 고발한다.

유럽 신좌파 68 운동권 세대들은 프로이트의 제자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의 성혁명에 대한 책을 광범위하게 함께 읽으면서 성유토피아를 실현하는 디오니소스적-통음난무적 성공동체도 시도했다. 이 공산주의적 성공동체에는 소아성애도 포함되었었다. 2018년 유럽 68 문화혁명 5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가 독일의 주요방송에서 많이 방영되었는데, 이 다큐멘터리에서도 성혁명을 추구했던 유럽 68 운동권들이 실험한 원시공산주의적 성공동체(코핀)에는 소아들도 일부 포함되었기에, 소아성애도 포함되었다는 내용도 비판적으로 분석되었다.

2.4.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는 성혁명(근친상간과 동성애)의 상징인가 ?

버틀러는 이성애 친족구조, 재생산, 근친상간 금기, 동성애 금기 등 인류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금기'를 프로이트맑시즘에서 파생된 젠더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해체하고 전복하려고 한다. 버틀러는 오이디푸스가 아니라, 안티고네를 정신분석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제안하면서 대안적인 친족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버지 오이디푸스의 근친상간의 자식으로 태어난 안티고네는 국가와 법의 대변자인 왕 크레온에 대항하다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전해지는 소포클레스 비극 속의 인물이다. 동성애 금기를 파기한 안티고네는 버틀러에 의해 이러한 젠더유토피아주의적인 새로운 대안적 친족관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버틀러는 이렇게 오이디푸스 보다는 안티고네가 상징적 질서의 재편과 재구성을 요구하는 유토피아적 관점을 대변하는 것으로 제시한다.²¹⁾

버틀러는 프로이트맑시즘적인 성유토피아주의의 정신 속에서 파생된 급진적인 사회구성주의(Sozialkonstruktivismus)의 이름으로 생물학적 성을 해체하고자 할 뿐 아니라, 그 동안 인류 문화의 기초로 작용했던 금기들(근친상간 금기와 동성애 금기)들도 전복하려고 한다. 하지만 버틀러는 그 금기들의 파계를 보여주는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를 비극적인 주인공으로 보여주는 그리스 비극 자체가 당시의 그리스 폴리스의 정치적 호국문학이었다는 사실을 보지

20) Gabriele Kuby, *Die globale sexuelle Revolution. Zerstörung der Freiheit im Namen der Freiheit*. Vorwort von Prof. Dr. Robert Spaemann (Fe-Medienverlags GmbH, 2012).

21) Judith Butler, *Antigone's Claim: Kinship between Life & Dea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못하고 있다. 곧 소개될 것이지만, 그리스 비극작품은 버틀러나 성혁명 이론가들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전복적 혁명문학이 아니라, 그리스 폴리스의 체제옹호적이고, 체제유지적이고 그리고 체제갱신적인 카타르시스적 호국문학이었다. 버틀러는 자신의 성혁명적이고 성정치적인 프로이트맑시즘에 기초해서 문화인류학적 근거가 희박한 젠더유토피아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버틀러는 안티고네는 쉽게 말해 애매모호성(ambiguity)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는데, 이 애매모호성은 지라르가 분석하는 차이소멸(L'indifférenciation)로 파악해야 한다. 버틀러는 친족과 국가를 대립시키는 헤겔 등의 해석에 반대한다. 버틀러는 쿼어한 안티고네라는 존재의 모호한 위치를 강조한다. 안티고네는 어머니(이오카스테)와 근친상간한 오이디푸스의 딸이기 때문에, 안티고네에 있어서 폴뤼네이케스는 오빠이면서도 조카이다. 또한 버틀러는 안티고네가 극 안에서 친족과 젠더의 규범을 교란시킨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쿼어한 안티고네의 정체성의 모호함과 대표불가능성은 친족의 위기에 대한 알레고리가 될 수 있다고 버틀러는 지적하는 것이다. 안티고네의 성정체성의 모호함과 그리스 비극작품에서 묘사되는 친족의 위기 등은 한마디로 사회적 위기를 의미하는 차이소멸로 읽혀야 한다. 친족과 젠더의 규범을 '교란시키는' 자인 안티고네는 지라르가 분석하는 '차이의 파괴자' 곧 희생염소 혹은 파르마코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라르에 의하면 희생염소는 야누스적이고 모순적이고 또한 쿼어하다. 쿼어한 디오니소스, 오이디푸스 그리고 안티고네 모두 야누스적인 희생염소와 모순적인 파르마코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안티고네에 대한 주디스 버틀러의 프로이트맑시즘적이고 젠더이론적 오독은 그리스 비극 깊이 읽기로 교정되어야 한다. 2018년 최근 『그리스 비극 깊이 읽기』 22)를 출간한 전남대 최혜영 교수는 그리스 비극이 포스트모던적 급진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복적이고 혁명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정치적 호국문학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리스 비극에 대한 페미니즘적인 독법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비극 속 여성은 능동적이고 당당하며 주체적이며 그로 인해 고대 아테네의 여성들에겐 비록 참정권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여성 인권이 강했으며, 여성이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억측에 불과하다고 최 교수는 주장한다. 그리스 비극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아테네의 대척점에 선 폴리스였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여성이 남성 역할을 대신하는 나라=망조가 든 나라'임을 부각하기 위한 극작술의 일환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비극에 나타나는 적극적인 여성상은 여권의 상징이라는 긍정적 측면이라기보다 오히려 상대 국가를

22) 최혜영, 『그리스 비극 깊이 읽기』 (서울: 푸른역사, 2018).

편협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최 교수는 지적한다.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에서 테베를 남녀의 역할이 뒤바뀐 사회, 즉 안티고네 같은 여자가 남자같이 용감하고 크레온 같은 남자가 여자같이 비겁한 사회, 시체 매장이라는 신들의 불문율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 명예로운 행동이 짓밟히는 사회, 왕실의 혈통이 끊긴 사회, 폭군이 지배하는 사회로 그려내고자 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테네가 등장할 때는 어김없이 민주정의 나라, 신들을 경외하는 나라, 남성이 남성다운 사회, 자손이 번성하는 사회로 그려진다.²³⁾

이렇게 주디스 버틀러는 그리스 비극 주인공인 안티고네의 전복성을 너무 순진하게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당시 그리스 비극을 필요로 했던 당시 사회정치적 메커니즘(희생양 메커니즘)의 코드를 읽어내지 못했다. 그리스 비극의 비극적이고 파계적인(transgressive) 주인공/희생양소인 안티고네를 프로이트맑시즘적이고 포스트모던적인 급진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안티고네 이야기를 담은 그리스 비극 자체가 그렇게 혁명적이고 전복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그리스 폴리스의 변형과 안정에 기여하는 일종의 정치적 호국문학이었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와 마찬가지로 안티고네는 카타르시스를 위한 존재이지, 혁명과 전복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다. 버틀러는 그리스 비극에 대한 오독에 기초해서 인류의 오래된 금기인 근친상간 금기와 동성애 금기를 전복적으로 해체하려고 한다. 하지만 근친상간 금기 파계와 동성애 금기 파계는 하마르티아(죄악, 비극적 결함)으로 읽어야 한다. 희생양소 안티고네의 퀴어한 하마르티아(죄악)는 카타르시스를 위한 것이지, 혁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2.5. 들뢰즈/가타리의 『안티 오이디푸스』와 파르마코스 오이디푸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오이디푸스는 성혁명과 성해방의 상징으로 오해되었다. 반자본주의적이고 프로이트맑시즘의 관점에서 쓰여진 들뢰즈와 가타리의 책에서도 오이디푸스는 성혁명의 상징으로 오해되고 있다. 빌헬름 라이히의 성혁명 개념이 계승되고 푸코가 서문을 쓰기도 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²⁴⁾은 서구의 존재방식을 유지시켜왔던 “환상들에 대한 해체” 시도라고 주장한다.²⁵⁾ 하지만, 들뢰즈와 가타리의 『안티

23) 권재현, “정치와 종교를 빼고 그리스비극을 논하지 말라. 아테네에서 창작된 비극의 주요 무대가 왜 테베인 걸까?” 주간동아 2018년 6월 12일 기사.<https://weekly.donga.com/3/all/11/1347221/1>

24) Gilles Deleuze; Félix Guattari; Michel Foucault, *Anti-Oedipus :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오이디푸스』도 은폐된 희생양 오이디푸스에 대한 그리스 폴리스의 환상을 해체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빌헬름 라이히도 주디스 버틀러도 파르마코스 역할을 하는 오이디푸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희생양 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인지불능(méconnaissance)이라고 지라르는 말한다.²⁶⁾

들뢰즈·가타리는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이란 제목으로 책을 두 권을 냈다. 첫 번째가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L'Anti-oedipe :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고 두 번째가 『천개의 고원』(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이다. 『안티 오이디푸스』는 1968년 문화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당시 프랑스 정치학의 급진적인 전환의 관점에서 쓰여졌다. 이 책은 모든 종류의 구조들과 위계질서들에 대한 강한 공격을 포함하고 있다. 들뢰즈의 사유에는 니체적이고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흐른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욕망이 매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욕망의 혁명성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기에 억제된 욕망은 정신질환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욕망의 흐름이 막히자 '욕망하는 기계들'인 인간은 정신분열자가 되어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파라노이아(편집병) 환자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들뢰즈와 가타리는 디오니소스적 욕망의 분출을 지지한다. 이러한 유사한 주장을 성혁명의 아버지 빌헬름 라이히도 전개했었다. 이렇게 칼 막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계승하는 문화맑시즘(프로이트맑시즘) 추종자들은 인간을 철저하게 '욕망하는 기계들'로 파악하기에 디오니소스적 성욕망의 분출을 해방으로 오해했다. 그래서 그들은 디오니소스적인 통음난무를 사회주의적 성유평가아로 파악했다.

지라르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안티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비판적인 평론을 썼다. 지라르는 이 책이 신화와 그리스 비극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라르는 사회병리학의 원인을 유아기에서만 발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²⁷⁾ 앞에서 본 것처럼 지라르는 레비-스트로스가 신화와 제의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²⁸⁾ 이 비판은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안티 오이디푸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지라르는 그리스 고전주의로부터 시작해

25) Geoffrey Samuel, *Tantric Revisionings. New Understandings of Tibetan Buddhism and Indian Religion* (Delhi: Motilal Banarsidass, 2005), 335.

26) Girard, *Das Heilige und die Gewalt* (Zürich: Benzinger, 1987), 154, 37, 175f.

27) René Girard, "Système du délire. Review of 'L'anti-Oedipe,' by Gilles Deleuze," *Critique* 28, no. 306 (1972), 961.

28) René Girard, "Levi-Strauss and Contemporary Theory," *To Double Business Bound: Essays on Literature, Art and Mimesi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곧 그리스 비극작가 소포클레스로부터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들뢰즈와 가타리의 『안티 오이디푸스』에 이르기까지 “오이디푸스 (신화)”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상한 취약성”을 보인다고 말한다. 소포클레스도 자신의 “파르마코스-영웅”(pharmakos-hero)인 오이디푸스를 끝내 추방했다.²⁹⁾ 지라르는 들뢰즈와 가타리의 『안티 오이디푸스』에 대한 자신의 서평에서 들뢰즈와 가타리도 결국 은폐된 희생양 오이디푸스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³⁰⁾

나오는 말

이 논문은 동성애 운동, 퀴어이론과 퀴어신학 그리고 젠더주의를 프로이트맑시즘이라는 큰 틀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프로이트맑시즘(Freudomarxismus)은 또한 문화맑시즘(Kulturmarxismus)이기도 하다. 디오니소스적 성욕망의 분출과 통음난무(Orgie)를 퀴어무정부주의적인 성유토피아로 파악한 프로이트맑시즘으로서의 『문화맑시즘의 황혼. 21세기 유럽 사회민주주의 시대의 종언』에 대한 책이 곧 출간될 예정인데, 보다 깊고 넓은 논의를 위해서는 참고하길 바란다.³¹⁾ 프로이트맑시즘은 성혁명을 통한 문화혁명을 지향하는 문화맑시즘이다. 하지만 그 프로이트맑시즘 담론들과 이론들은 인류 문화, 신화, 제의 그리고 금기에 대한 파상적이고 낭만적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독일 프로이센 이후의 사회주의 경우처럼 사회주의 자체가 낭만주의 운동으로부터 탄생했다. 지금까지 르네 지라르의 문화이론과 문화인류학에 기초한 낭만주의적 프로이트맑시즘(문화맑시즘) 비판을 시도했다. 프로이트맑시즘은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원시공산주의(Urkommunismus) 이론과 마찬가지로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 ‘낭만적 거짓’이다.

유럽 68 운동도 이후 독일 사회에서 심각한 도덕성의 하락을 가져왔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다. 동성애 혁명운동은 성적인 무정부주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한다. 빌헬름 라이히와 마르크제도 디오니소스적인 통음난무, 소아성애, 자유로운 폴리아모리(다자성애) 등을 통한 성유토피아를 꿈꾸었다. 그 성유토피아는 성적인 무정부주의적 세계다. 주디스 버틀러도 퀴어

29) Philippe Lacoue-Labarthe, "Mimesis and Truth," in *Diacritics*, Vol. 8, No. 1, Special Issue on the Work of René Girard (Spring, 1978), 15.

30) Girard, "Système du délire. Review of 'L'anti-Oedipe,' by Gilles Deleuze."

31) 이에 대해서는 곧 출간될 정일권, 『문화맑시즘의 황혼. 21세기 유럽 사회민주주의 시대의 종언』 (서울: CLC, 2020)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국정원장 연구지원 및 추천)을 참고하라.

무정부주의를 주장한다. 그래서 성혁명 이론가들은 모든 성범죄의 탈범죄화를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동성애 혁명운동이 단순한 시민권 운동이 아니라, 디오니소스적인 성혁명 운동이라는 사실은, 동성애 운동이 전통적인 일부일처제를 전복적으로 혁명하고자하는 다자성애와 소아성애 운동과도 밀접히 연관되어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1세기 글로벌 성혁명 운동과 사회주의 성정치 운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일종의 성유토피아로서, 모든 성적인 금기를 폐지하고, 모든 성범죄를 탈범죄화하고 나아가 그것을 법제화해서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사회주의적 법률혁명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위에서 비판한 독일 68 학생 문화혁명 운동의 멘토였던 아도르노의 이러한 성적인 금기들(Sexualtabus)에 대한 법률적 탈범죄화 주장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권에 진출한 독일 녹색당과 좌파 정당들은 실제로 소아성애의 탈범죄화와 법제화를 추진하려고 했다. 독일 녹색당과 좌파(Linke) 정당들의 소위 소아성애적 안티파(안티파시즘) 운동이 존재했다. 그들은 반권위주의적-사회주의적 재교육(Umerziehung)의 이름으로 모든 성적인 금기들(동성애 금기, 근친상간 금기, 소아성애 금기 등)의 해체 그리고 법률적인 탈범죄화를 통한 성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했다. 21세기 사회주의 성정치 운동은 인류를 무질서로부터 보호해 온 모든 성적인 금기들을 파괴하고 해체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언어금기인 정치적 올바름(PC)과 차별금지법을 생산해서 자신들의 디오니소스적 통음난무(성유토피아)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하고 보호하려고 시도한다.

참고문헌

- Adorno, Theodor. *Sexualität und Verbrechen*. Fischer Bücherei, Bd. 518/519. Frankfurt und Hamburg 1963.
-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2007.
- _____. *Antigone's Claim: Kinship between Life & Death*.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
- Deleuze, Gilles; Guattari, Félix ; Foucault, Michel. *Anti-Oedipus :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3.
- Girard, René. *Mensonge romantique et vérité romanesque*. Paris: Grasset, 1961.
- _____. *Deceit, Desire, and the Novel: Self and Other in Literary Structur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65.
- _____. *La Violence et le Sacré*. Paris: Grasset, 1972.
- _____. "Système du délire. Review of 'L'anti-Oedipe,' by Gilles Deleuze."

- Critique* 28, no. 306 (1972).
- _____. "Superman in the Underground: Strategies of Madness—Nietzsche, Wagner, and Dostoevsky," *MLN*, Vol. 91, No. 6, Comparative Literature (December, 1976).
- _____. "Differentiation and Undifferentiation in Lévi-Strauss and Current Critical Theory," *Contemporary Literature* Vol. 17, NO. 3 (1976), 111–136.
- _____. *Des choses cachées depuis la fondation du monde*. Paris: Grasset, 1978.
- _____. "Levi-Strauss and Contemporary Theory," *To Double Business Bound: Essays on Literature, Art and Mimesi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 _____. "Delirium as System" , trans. P. Livingston and T. Siebers, in *To Double Business Bound: Essays on Literature, Art and Mimesis*.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 _____. *Le Bouc émissaire*. Paris: Grasset, 1982.
- _____. *Das Ende der Gewalt. Analyse des Menschheitsverhältnisses*. Freiburg/Basel/Wien: Herder, 1983.
- _____. "Dionysus versus the Crucified." *Modern Language Notes*,. Vol. 99 (ca. 1984, No. 4), pp. 816–35.
- _____. "Disorder and Order in Mythology," in *Disorder and Order. Proceedings of the Stanford International Symposium* (Sept. 14–16, 1981). Ed. P. Livingston. Saratoga 1984.
- _____. *La Route antique des hommes pervers*. Paris: Grasset, 1985.
- _____. *The Scapegoat*.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_____. *Das Heilige und die Gewalt*. Zürich: Benzinger, 1987.
- _____. *Things Hidde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Research undertaken in collaboration with Jean-Michel Oughourlian and Guy Lefor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 _____. "Generative Scapegoating," in *Violent Origins: Walter Burkert, René Girard, and Jonathan Z. Smith on Ritual Killing and Cultural Formation*. Ed. R. G. Hamerton-Kell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 _____. *Der Sündenbock*. Zürich: Benziger, 1988.
- _____. *Les origines de la culture. Entretiens avec Pierpaolo Antonello et João Cezar de Castro Rocha*. Paris: Desclée de Brouwer, 2004.
- _____. *Oedipus Unbound: Selected Writings on Rivalry and Desire*. Ed. Mark R. Anspach.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Kilby, Je. 'Judith Butler, incest, and the question of the child's love' , *Feminist Theory*, 11 (3), 2010 , pp. 255–265.
- Kuby, Gabriele. *Die globale sexuelle Revolution. Zerstörung der Freiheit im Namen der Freiheit*. Vorwort von Prof. Dr. Robert Spaemann. Fe-Medienverlags GmbH, 2012.
- Marcuse, Herrbert. *Eros and Civilization: A Philosophical Inquiry into Freud*.

- Boston: Beacon Press. 1974.
- Sager, Christin. *Das aufgeklärte Kind. Zur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anischen Sexualaufklärung (1950–2010)*. Bielefeld 2015.
- Sharf, Myron. *Fury on Earth: A Biography of Wilhelm Reich*. New York: St. Martin's Press/Marek, 1983.
- Taylor, Chloe, *Foucault, Feminism, and Sex Crimes: An Anti-Carceral Analysis*. Routledge 2018.
- Reich, Wilhelm. *Die Massenpsychologie des Faschismus*. Kopenhagen: Verlag für Sexualpolitik, 1933.
- 이성원,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서양고전학연구 제55권 제1호, 2016.3.
- 정일권, 『질투사회. 르네 지라르와 정치경제학』. 서울: CLC. 2020.
- 최혜영, 『그리스 비극 깊이 읽기』. 서울: 푸른역사, 2018.

논문초록

이 논문은 차별금지법으로 법제화를 시도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퀴어이론 그리고 동성애 운동은 프로이트맑시즘(Freudomarxismus)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이해한다. 프로이트맑시즘의 초석이자 아킬레스건인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은 그리스 비극작품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범성욕주의적 오독으로 인한 것이기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거나 폐기되어야 할 이론이기에, 21세기 글로벌 성혁명운동과 사회주의 성정치 운동의 기초가 되는 프로이트맑시즘 자체가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2014년 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연구소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이성원 명예교수의 논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와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오이디푸스가 일종의 희생양,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희생염소(scapegoat)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라르의 해석을 언급하며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지라르를 이론을 소개하면서 오이디푸스의 추방은 당시의 인간 희생양(human scapegoat) 파르마코스(pharmakos) 추방과 연관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탄생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과 그의 정신분석에 대한 지라르의 비판과 그의 새로운 해석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서 파생된 이후의 포스트모던적 정신분석(라캉, 크리스테바, 들뢰즈-가타리)이 천착하고 있는 오이디푸스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의미한다.

그리스 비극작품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프로이트와 프로이트맑시즘의 오독으로 인해서 프로이트

맑시즘의 첫 학자라 할 수 있는 빌헬름 라이히의 성혁명 이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소아성애의 근거가 된다. 이후 소개할 독일 녹색당과 좌파의 “소아성애적 안티파(안티파시즘)” 운동에서는 “동성애의 탈범죄화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이 동일한 그룹에 의해서 추진되었다고 2020년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 현대사 교수인 페터 호에레스(Peter Hoeres)는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소아성애는 1980년대의 독일 녹색당의 미래기획이었고 이는 동성애의 탈범죄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은 동일한 그룹에 의해 추진되었다.”³²⁾ 그렇기에 동성애 운동은 21세기 글로벌 성혁명과 사회주의 성정치라는 큰 틀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독일어권에서도 아직도 “정립된 학문”(etablierte Wissenschaft)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³³⁾ 21세기 심리학의 주류도 뇌과학에 기초한 인지심리학이다 또한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디스 버틀러도 인정하는 거세지는 글로벌 퀴어-젠더 연구 폐지운동도 소개하고자 한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UN과 EU과 같은 기구로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관철되는 국가페미니즘(Staatsfeminismus)이며, 칼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사상의 융합으로 탄생한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인데, 국가재정을 통해서 국가주의적인 방식으로 강제되는 이 탑다운 방식 국가페미니즘(퀴어-젠더 페미니즘)의 보편적 학문성에 의문을 이 논문은 제기하고자 한다.

프로이트맑시즘은 사회주의 성혁명과 성정치 개념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의 제자 빌헬름 라이히, 성유평피아를 주장한 마르크제, 68 학생 문화혁명 세대, 문화맑시즘(Kulturmarxismus)을 지향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 포스트모던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 모두에 존재하는 사유다. 반자연과학적이고 반실재주의적인 해체주의 철학과 퀴어 무정부주의(Queer Anarchism)을 주장하는 주디스 버틀러의 입장은 인류 문명과 신화와 제의에 대한 피상적 오독으로부터 파생된 사회주의 정치이데올로기로서, 21세기 인류문명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보편타당한 교육이념이 될 수 없다. 주디스 버틀러는 해체주의 철학을 자신의 젠더페미니즘에 적용시켰지만, 정작 해체주의 철학을 주장했던 데리다는 생애 후기에 ‘눈물과 기도’를 보이면서 자신을 성 아우구스티누스에 비견하면서 유대교 전통으로 회귀했다.

주디스 버틀러는 그리스 비극 주인공인 안티고네의 전복성을 너무 순진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당시 그리스 비극을 필요로 했던 당시 사회정치적 메커니즘(희생양 메커니즘)의 코드를 읽어내

32) 페터 호에레스 교수는 2020년 3월 11일 독일 보수주의 도서관(Bibliothek des Konservatismus)에서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미래 보수주의의 개막극(Nach der Postmoderne - Vorspiel eines Konservatismus der Zukunft)”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역사가로서 20세기 후반 유행했던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독일어권을 비롯한 유럽에 새로운 보수주의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강의에서 그는 또한 독일 녹색당과 좌파정당이 추진했던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33) 독일어권에서 유명한 철학프로그램으로 알려진 2008년 바이에른 방송(Bayerischer Rundfunk)이 제작한 철학프로그램 ‘서양 사상가’(Denker des Abendlandes) 3.14 Darwin, Freud, Max Weber (37/43)에서 이러한 사실이 소개된 바 있다.

지 못했다. 그리스 비극의 비극적이고 파계적인(transgressive) 주인공/희생염소인 안티고네를 프로이트맑시즘적이고 포스트모던적인 급진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안티고네 이야기를 담은 그리스 비극 자체가 그렇게 혁명적이고 전복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그리스 폴리스의 번영과 안정에 기여하는 일종의 정치적 호국문학이었기 때문이다. 오이디푸스와 마찬가지로 안티고네는 카타르시스를 위한 존재이지, 혁명과 전복을 위한 존재가 아니었다.

| 논 찬 문 | | 기독교학문연구회 | |
|------------|---|-------------|--------------------|
| 발표논문 제목 |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는 성혁명의 상징인가? -르네 지라르의 문화이론에 기초한 프로이트맑시즘 비판 | 발표자 | 정일권 |
| | | 논찬자 (소속) | 이신열 (고신대학교 신학과) |

본 논문은 르네 지라르의 문화이론을 토대로 프로이트의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둔 동성애 퀴어 이론 및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논문이다. 발제자인 정일권 박사는 르네 지라르에 관한 단행본을 출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오신 분이신데 이 발표를 통해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관한 지라르의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본 논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으로 대표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이에 기반을 둔 프로이트 마르크스주의에 내재한 결정적 약점을 지적한다. 프로이트의 문제점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에 대한 오독에서 출발한다. 프로이트의 이 오독에 근거해서 프로이트 마르크스주의의 첫 학자인 빌헬름 라이히의 성혁명이 태동했는데, 동성애 운동은 이 성혁명과 사회주의 성정치라는 큰 틀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된다.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이 지니고 있는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그의 학문은 독일어권에서 아직 정립된 학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퀴어 젠더 연구 폐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에 의해서 타당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퀴어 젠더 페미니즘이 내세우는 보편적 학문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발제자의 주요 논지에 해당된다.

계속해서 발제자는 주디스 버틀러라는 버클리대학의 비교문학 교수로서 <젠더 트라블>의 저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가 호소하는 소위 LGBTQ로 알려진 사회주의적 성정치 운동이 직면한 글로벌 저항운동을 소개한다. 유럽 및 남미의 여러 국가에서 2010년대에 들어서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국가가 주도하는 젠더 교육이 폐지되거나 이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글로벌 저항운동’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 버틀러의 호소이자 불평에 해당된다. 발제자는 버틀러가 주장했던 퀴어 무정부주의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젠더 주류화는 결코 주류가 될 수 없고 인류 문명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렇게 버틀러가 직면한 젠더 이데올로기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 후 발제자는 독일의 아도르노와 버틀러의 동성애, 매춘, 소아성애, 근친상간에 대한 폐지 주장에 대해서 논의한다. 아도르노는 동성애를 위시한 성적 금기의 폐지를 주장하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성적 금기의 폐지라는 개념이 형법제정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버틀러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어머니를 향한 아이의 성적 욕망에 대한 금기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젠더

트러블>에서 주장한다. 르네 지라르는 <폭력과 성스러움>에서 버틀러와 전혀 다른 주장을 전개하면서 성적 금기가 폐지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견해를 표방했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발제자는 빌헬름 라이히와 마르쿠제의 성혁명과 성정치, 그리고 성유토피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먼저 성혁명은 성에 대한 프로이트적 정신분석학과 사회주의 혁명으로 대변되는 마르크스의 정치 경제학이 융합되어서 나타나게 된 개념으로 제시된다. 여기에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프로이트의 제자이자 정신분석학에 공산주의 이론의 도입을 시도했던 라이히의 <성혁명>이라는 저서이다. 그의 주장은 유럽의 68 운동권에 의해 수용되었고 독일의 학교 교육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마르쿠제는 <에로스 and 문명>에서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 대한 성유토피아적 해석을 시도한다. 성 억압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운 성유토피아 개념을 내세우는 68 혁명 당시에 유행한 히피운동과 자유로운 성 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두 번째 장은 5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프로이트 마르크스주의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전체적 주제를 설정한 후, 1.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한 오독 (소아성애와 성혁명) 2. 독일 녹색당의 소아성애 합법화 지원 파문 3. 소아성애적 반파시즘 (68 문화혁명, 독일 녹색당과 좌파) 4.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가 성혁명 (근친상간, 동성애)의 상징인가? 5. 들뢰즈와 가타리의 <안티 오이디푸스>와 파르마코스 오이디푸스를 각각 다루고 있다.

이 장이 본 논문의 핵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4번째와 5번째 섹션에서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라는 본 논문의 제목으로 설정된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에 걸쳐 고찰된 주제들은 사실상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를 다루기에 앞서 동성애와 성혁명이 지닌 문제점을 서론적으로 고찰하는 일종 전주곡의 형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4번째 섹션에서 버틀러가 내세우는 성혁명에 대한 주장은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가 그리스 폴리스를 배경으로 하는 정치 체제를 옹호하고 유지하고 갱신하는 카타르시스적 성격을 지닌 호국적 문학이라는 점과 배치된다는 사실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버틀러가 오이디푸스와 안티고네를 오독한 것이었다는 주장은 본 논문의 핵심에 해당된다. 5번째 섹션에서 들뢰즈와 가타리의 <자본주의와 정신분열증>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안티 오이디푸스>와 <천 개의 고원>에서 들뢰즈는 모든 종류의 위계질서를 급진적으로 공격하면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억제된 욕망이 정신질환을 야기시킨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욕망하는 기계’로서 인간은 정신질환자가 되어 망상에 사로잡히거나 파라노이아 (편집병) 환자가 되는데 이는 디오니소스적 성 욕망의 분출이라는 개념을 지지하는 것이었다. 발제자는 이 부분에서 프로이트 마르크스주의가 공산주의적 사고를 계승해서 인간을 욕망하는 기계로 파악하고 성욕망의 디오니소스적 분출

을 해방이며 성 유토피아라고 오해한 것이라는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다.

이런 방식으로 본 논문은 프로이트 마르크스주의 후예들이 주장하는 성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성혁명, 성유토피아 등의 이론에 나타난 주장들에 나타난 허구를 파헤치면서 이들의 주장은 사실상 ‘낭만적 거짓’에 불과한 것이라고 올바르게 지적한다. 이들의 반사회적이며 반체적인 혁명적 사고에 나타난 문제점으로 발제자는 이들이 끊임없이 모든 성적 금기를 폐지하고, 성범죄를 탈범죄화려는 시도와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았는데 이런 움직임이 독일의 녹색당과 좌파정당들의 소아성애의 법제화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런 법제화의 움직임은 최근 우리나라에도 차별금지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지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지니고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엄연한 현실을 직면하면서 성경적이며 전통적 기독교의 성적 가치를 옹호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필요불가결의 과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통해서 동성애 옹호를 위시한 다양한 성혁명적 사고의 뿌리가 프로이트 마르크스주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에 대한 학문적 비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학문적 작업의 결과로서 이런 성혁명적 운동이 궁극적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가왔다는 현실 또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신 발제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